

# “광주 전체를 거대한 전시관으로”



15일 광주 가톨릭대 평생교육원에서 작업중인 작가 서도호씨.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글로벌 아티스트로 떠오른 이 남자는, 15일 1시간 넘게 이어진 인터뷰 내내 ‘광주와의 인연’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 광주비엔날레와 ‘폴리프로젝트’에 출품하는 작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흥분된다”고도 했다. 세계 미술계에서도 인정받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가 서도호씨는 현재 광주를 대상으로 ‘예술적 실험’에 착수했다. 기존 관념과 경계를 뛰어넘는 관객들과의 소통 방식을 사용했고 작품 활동을 하는 10년 넘게 써 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방법도 채택했다.

-1년에 100번 비행기를 탈 정도로 바쁘지 않은가. 지난 2004년엔 비엔날레 참여 제안을 바쁜 일정 탓에 받아들이지 못했다.

▲김선정 비엔날레 공동감독이 직접 런던에 왔는데, 한번 만나자고 했다. 당시엔 참여해달라는 게 아니었다. 다만, 얘기 중 광주에서 ‘폴리프로젝트’를 추진중이라고 했다. 사람 사는 건물이 아니라 건축과 조형물의 중간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시관이 아니라 밖에 나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솔깃했다. 작가라면 감해있는 듯한 느낌의 미술관 전시가 아닌 곳에서의 전시 기회가 주어지면 흥분한다. 이후 김 감독이 뭔가 아이디어를 달라며

### 비엔날레 참여하는 서도호씨

### 대인시장·가톨릭대 작품 소재로

### ‘틈새 호텔’ 컨셉 폴리 작업도 병행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순간 ‘흥분되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래서 비엔날레와 폴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그 아이디어가 이번 비엔날레와 폴리프로젝트로 나오는 건가.

▲그렇다. 비엔날레에는 ‘프로타주’ 방법으로 3개의 방을 전시할 계획이다. 대인시장, 가톨릭대학의 기숙사 방, 금남로 1가 1번지 전일빌딩이다. 전일빌딩은 공간 등을 감안해야 해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또 폴리 프로젝트에는 ‘틈새 호텔’을 제작해 선보이게 된다. 다음에 어떤 작품을 내놓을까 궁금해하는 관객들이 많았다. 그 작품이 빨리 나오게 된 것 같다.

-왜 대인시장이고 가톨릭 대학인가.

▲광주에 와서 도심을 돌아다녀보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구도심의 공동화가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고 도시로서의 원기가 빠져나가 보이는 것 같았다. 광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쓰지않는 공간들, 그렇다고 부수거나 없애버릴 수도 없는 공간들, 그런 공간

3개를 골랐다. 대인시장이나 가톨릭대 기숙사, 전일빌딩 모두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사라져가는 공간의 기억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택했다.



틈새 호텔 이미지

-프로타주 기법은 뭐가.

▲방 전체를 종이로 덮고 연필로 문지른다. 카톨릭대학 기숙사방은 노랑색부터 시작해 빨강·파랑·검정색의 4가지 컬러를 사용한다. 어떤 시절 연필로 책상이나 동전 위의 결을 베껴내던 것 있지 않은가. 그렇게 작업하면 여러 차례 작업할 수록 세밀한 흔적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작업은 얼마나 어루만지느냐에 따라, 얼마나 정성스러우냐에 따라 그 공간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대인시장은 한가지 색으로 할 계획이다. 역사를 기억하는 과정이랑 비슷하지 않나. 전일빌딩은 아예 흑연 덩어리로 작업할 계획이다. 특히 눈을 가리고 촉각에만 의존해 무수한 시간의 흔적들을 최대한 살려낼 계획이다.

-‘틈새 호텔’은 뭐고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건가.

▲처음부터 왜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옮겨다니면 어떻게가는 역발상이 들었다. 그렇게되면 광주 도심 전체가 전시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런 장소는 도심 관광 명소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외지인으로서 광주를 이해하고 알게되는 목적도 있었다. 붕괴한 대가 들어갈 정도의 골목에, 통행이 지장을 주지 않는 공간. 그런 데 들어간다. 광주의 도심 3분의 2가량을 찾아봤는데, 100개가 넘더라. 물론, 이 때 골목길을 사이에 둔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 등 협조가 절대적이다.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작품에 참여하게 된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싶는데, 이게 키 포인트다.

/김진수기자 dok2000@kwangju.co.kr

www.kwangju.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2-8053.

◇부문별 대상 입상자  
▲홍지애(공감1) 황순금(내전선생 시) 흥원철(리더) 백계철(수락폭포) 서복선(봄나들이 1)

/김진수기자 dok2000@kwangju.co.kr

입상자 명단 광주일보 홈페이지에

### 호남예술제 관악 입상자

- 〈심사위원〉  
신상호(전북대 교수)  
한기세(전서울시향수석)  
김연주(초당대 교수)  
이승호(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  
장재경(코리안심포니부수석)
- ◇플루트(초등부 1, 2)  
▲ 금상 2 김민경(치평1)  
▲ 은상 1 김수지(광주송원2)  
▲ 동상 3 정유이(광주송원2)  
◇플루트(초등부 3, 4)  
▲ 금상 3 유지후(광주삼육)  
▲ 은상 2 조민서(광주송원3)  
▲ 동상 1 남이주(광주송원3)  
◇플루트(초등부 5, 6)  
▲ 최고상 9 김서현(광주송원5)  
▲ 금상 5 김현지(광주송원5)  
6 박소연(광주삼육)  
▲ 은상 1 김재현(광주삼육5)  
4 김동연(여수북6)  
8 김진영(블로6)  
▲ 동상 3 이하민(광주송원5)  
7 양혜림(광주계림5)  
10 정선미(광양제철6)  
12 박선유(블로6)  
◇클라리넷(초등부)  
▲ 금상 2 김남현(광주송원4)  
9 강다빈(여도6)  
11 손수민(광양제철6)  
▲ 은상 1 정수환(광주송원4)  
7 김여진(순천동산6)  
8 박준형(하남5)  
10 허준희(광주송원5)  
▲ 동상 3 박건희(광주송원4)  
4 김은민(여도5)  
6 김희석(광주송원5)  
◇오보예(초등부)  
▲ 금상 3 이주현(광주송원5)  
▲ 은상 1 진주연(광주송원4)  
2 정지유(광주송원5)  
◇색소폰(초등부)  
▲ 금상 2 박혁준(하남5)
- ▲ 은상 1 이태호(하남4)  
◇ 튜바(초등부)  
▲ 은상 1 김 훈(하남5)  
◇ 트럼펫(초등부)  
▲ 금상 2 김영민(정암5)  
▲ 은상 1 박찬술(하남5)  
◇ 마림바(초등부)  
▲ 금상 3 송인혁(광주송원6)  
▲ 은상 1 김민호(광주송원3)  
2 정승현(광주송원4)  
◇ 플루트(중등부 1, 2)  
▲ 금상 3 이혜민(광양제철2)  
4 김민정(살레시오여자2)  
▲ 은상 1 김혜령(광주중앙2)  
▲ 동상 2 윤재희(화순1)  
5 윤서영(화순1)  
◇ 플루트(중등부 3학년)  
▲ 금상 7 오예민(전주예술3)  
12 박재희(원도여자3)  
▲ 은상 8 김세현(성덕3)  
10 이혜민(전주성심여자3)  
11 김진영(전남3)  
▲ 동상 6 유시우(순천향림3)  
9 이화진(화순제일3)  
◇ 클라리넷(중등부)  
▲ 최고상 1 박찬희(광주세광학교3)  
◇ 플루트(고등부 1, 2)  
▲ 금상 3 임나경(광주예술1)  
3 임나경(광주예술1)  
5 이미연(전주예술2)  
▲ 은상 2 손미경(전남대사범대부설2)  
6 강소영(광양제철1)  
12 황도연(전남예술2)  
▲ 동상 1 신혜지(광주경신여자2)  
4 김예슬(여수충무2)  
7 백주현(전남예술2)  
9 김수연(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2)  
11 김지후(광주예술2)  
◇ 플루트(고등부 3학년)  
▲ 최고상 14 서정민(광주예술3)  
▲ 금상 21 노하림(전주예술3)  
23 표지운(광주예술3)
- ▲ 은상 15 이슬비(광주경신여자3)  
17 최현서(전남예술3)  
24 이도현(상일여자3)  
▲ 동상 10 박소현(광주예술3)  
13 박그리니(여수중앙여자3)  
16 김수연(전남대사범대부설3)  
18 이수민(동아여자3)  
19 김다민(전남예술3)  
20 손승희(대성여자3)  
22 정주리(전남여자3)  
25 남지민(전남예술3)  
◇ 클라리넷(고등부)  
▲ 최고상 1 김연준(전주예술2)  
▲ 금상 4 장양민(광주예술2)  
5 한승아(광주예술3)  
▲ 동상 2 김하림(광주예술1)  
3 이다은(전남예술2)  
6 임장성(전남공업3)  
7 김다예(전남예술3)  
◇ 오보예(고등부)  
▲ 금상 2 류혜민(광주예술3)  
▲ 동상 1 조연후(보성3)  
◇ 호른(고등부)  
▲ 은상 1 김선광(광주예술1)  
◇ 비순(고등부)  
▲ 금상 1 김남훈(광주예술2)  
◇ 트럼본(고등부)  
▲ 금상 1 기수민(광주예술1)  
2 윤혜지(순천대산여자3)  
◇ 트럼펫(고등부)  
▲ 금상 3 김신학(나산3)  
▲ 은상 1 허인용(전남예술1)  
▲ 동상 2 양석운(전남예술1)  
◇ 마림바(고등부)  
▲ 금상 3 이한철(영산성지3)  
▲ 은상 2 이루리(전주생명과학3)  
▲ 동상 1 최혜순(순천대산여자3)

\* 최고상 수상자는 컬러 인물사진 2매를 5월 22일까지 본사 문화사 업무으로 제출 바랍니다.

## 광주시전 안희주씨 서양화 대상

### 10개 부문 700점 입상

제25회 광주시미술대전에서 안희주(25·광주)씨의 ‘나를 바라보다’가 서양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10개 부문에서 모두 700여점이 입상했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출품작 1294점 가운데 대상 6점, 최우수상 10점, 특선 162점, 입선 522점 등 총 700점의 입상작을 발표했다.

시상식은 오는 6월1일 오후 3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이날부터 6월 까지 같은 장소에서 추천·초대작가 작품과 함께 전시된다. 입상자 명단은 광주일보 홈페이지(www.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0,000원 /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죽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신 · 세탁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